

## 종말과 재림에 대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알찬 생활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영적으로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의 개인적 종말인 죽음과 부활문제에 이어, 온 인류와 우주의 종말에 대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1. 세상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출생과 죽음이 있으며 역사에도 시작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역사의 종말, 즉 인류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종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전도서 3장 1-2절]

2.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다니엘 제7장 3절에 보면『인자(예수 그리스도를 칭함)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재림을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이 예수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히브리서 9장 28절]

3. 성경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멸망과 불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심판으로,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종말 현상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누가복음 17장 29-30절]

### ☞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① 공중에서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누가복음 21:27)

② 전 인류가 알게 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요한계시록 1:7)

③ 죽었던 성도의 육체가 부활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데살로니가전서 4:16)

④ 살아있는 성도들의 육체가 변화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고린도전서 15:51)

⑤ 부활된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데살로니가전서 4:17)  
⑥ 지상에는 무서운 환난이 쏟아집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베드로후서 3:10)

### ☞ 종말(재림)의 징조를 알수 있습니까?

1.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의 거의 모든 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마태복음 24장 14절]

2.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독립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성경구절 : 로마서 11장 26절]

3. 민족간의 전쟁, 대기근, 지진이 심해집니다.  
종말의 징조는 전쟁, 기근, 지진 등의 자연 재해와 거짓 선지자들 에 의한 악령의 표적, 그리고 하늘과 천체에 이상 현상을 보이는 우주적 표적들로 나타납니다.

[참고 성경구절 : 마태복음 13장 8절]

4.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위선이 극에 달합니다.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고 도덕의 기준이 무너지며 쾌락을 사랑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각종 이방 종교가 판을 치게 되며 기독교 신앙의 타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성경구절 : 디모데후서 3장 2절]

### ☞ 성도는 예수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1.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때가 가까워 왔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임박했다고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고 또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너무 게을러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누가복음 12장 40절]

2. 교회 생활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규칙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여적인 제사를 드리며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히브리서 10장 25절]

3. 성별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치 말며 경건한 자세로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성경구절 : 요한일서 3장 3절]

4.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전도에 힘써야겠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와 같이 종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용어 해설

- 에벤에셀 -

‘듣는 돌’이라는 뜻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한 기념으로 사무엘 선자가 세운 비석인데, 후에 땅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원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한 곳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도로 찾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으므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패한 블레셋 군대는 사무엘의 생전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치 못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동안에는 누구도 침범치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예배 : 오전 9시
		2부 영어 예배 : 오전 9시 (2층)
		3부 예배 : 오전 11시
		유*초등부 예배 :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 : 오전 11시
	기타예배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
		수요 삼일 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 찬양 기도회 저녁 8시 30분
		중*고등부 금요 찬양예배 저녁 8시 30분
	정기모임	화요일 / 한어 대학*청년부(영) 저녁 8시
		토요일 / 영어 대성경 공부(한) 오후 5시
		토요일 / 청소년 성경공부 저녁 8시
		토요일 / 한국학교 오전 9시

한인동산장로교회

NEW HOPE REFORMED CHURCH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사무실 : (914) 961-9250 / 1 (Fax 겸용)  
Website : <http://www.newhopeministry.net>

이 돌맹이를 얼마를 주면 팔겠소?

스승이 제자에게 돌맹이를 하나 주며 말했다.  
“이것을 시장에 갔다가 팔려고 하되 팔지는 말아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돌맹이 하나를 들고 시장으로 나갔다.

시장 어귀에 깨끗한 하얀 보자기 위에 돌맹이 하나를 올려두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를 보고 비웃었다.

하루 종일 돌맹이를 앞에 두고 서 있는 청년이 불쌍해서 어떤 노인이 물었다.  
“이 돌맹이를 얼마를 주면 팔겠소?”  
제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이 말했다.  
“내가 5,000원을 줄테니 이 돌맹이를 나한테 팔고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구려.”

제자는 팔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노인이 10,000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도 청년이 팔지 않겠다고 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물려들었다. 사람들은 돌맹이 하나를 두고 가격 흥정을 했다.

아무 말도 없는 청년을 앞에 두고 서로가 돌맹이를 사기 위하여 가격을 높게 불렀다.

“오만원!” “육만원” “팔만원” “십만원” “이십만원” “삼십만원” “오십만원”...

동점으로 시작된 돌맹이 값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돌맹이가 엄청난 것인 줄 알고 서로 사려고 안간힘을 썼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비장하게 말했다.  
“백만원을 줄테니 나에게 파시오.”

사람들은 입이 딱 벌어져서 포기를 하고 말았다.  
“나는 이 돌을 팔 수 없습니다.  
단지 시세를 알아보러 여기에 나왔을 뿐입니다.”

제자가 돌아오자 스승이 그를 보고 말했다.  
“알겠느냐?

사람들이 가격을 정하고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오늘도 주안에서 승리하세요.